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御定宋史筌』「外國傳」에서 나타난 조선의 '中華' 의식과 교육관 —— 「遼傳」의 분석을 중심으로 ——

홍성민 (와세다대)

들어가며

『御定宋史筌』(이하 『宋史筌』이라고 함)은 正祖와 奎章閣臣들에 의해 편찬된 『宋史』 改修書이다. 『宋史』 개수작업은 明代에 몇 차례 이루어졌지만, 중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진 점이 『宋史筌』의 특징이다. 『宋史筌』은 遼, 金, 蒙古를 列傳으로 편입시키는 등[1] 몇 가지 점에서 『宋史』와는 다른 체례를 가지고 있다.

『宋史筌』은 金毓黻의 소개로 韓國 이외에도 그 존재가 알려졌다.[2] 그리고 그 실물은 閔斗基 등에 의한 서울대학교 奎章閣의 古文獻整理에 의해 확인되었다.[3] 그 뒤, 『宋史筌』에 관한 연구는 주로 臺灣學者 宋晞에 의해 진행되었다.[4] 韓國에서는 기초적인 연구[5]를 제외하면 21세기가 되어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6]

『宋史筌』 編纂背景으로는 正統論을 들 수 있는데, 『宋史』 改修書 중에서 遼, 金, 蒙古傳의 부분은 『宋史』의 蕪雜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正統論과 관계가 된다. 한편, 조선에서 『宋史筌』이 편찬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분석은 조선의 '中華'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宋史筌』「外國傳」 중에서 「遼傳」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宋史筌』「遼傳」에 대한 분석에는 첫째 『宋史』 改修書로서의 의의, 둘째 조선후기 사상계 속에서 가지는 의의가 상정된다. 더 나아가 조선의 '中華' 의식과 교육관에 대해서도 규명할 수 있겠다.

1. 宋遼金元史에서 正統問題와 그 繼承意識

1) 중국 明代의 正統論

1) 『宋史筌』 卷首, 義例補, 「『史筌』之作, 紀二帝, 傳三虜, 表五賢, 蒐遺民, 此其大綱.」
2) 金毓黻, 『中國史學史』, 商務印書館, 1957(초판 : 1941年), 144쪽. 한편, 金毓黻은 1932年에 朝鮮을 방문했을 때, 10月31日에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로부터 『宋史筌』「義例」를 제공받았다고 한다(毛利英介, 「満洲史と東北史のあいだ——稲葉岩吉と金毓黻の交流より——」, 『東西學術研究所紀要』第48輯,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 2015, 352쪽).
3) 閔斗基 · 吳金成 · 李成珪, 『朝鮮學人의 中國史研究의 整理와 評價』, 서울大學校東洋史學科, 1980.
4)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宋晞, 「読『宋史筌』高麗傳」, 『宋史研究論叢』第2輯,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0; 同「読宋史筌遼 · 金傳」, 衣川強 編, 『劉子健博士頌寿紀念宋史研究論集』, 同朋舎出版, 1989; 同「読『宋史筌』遺民傳」, 『宋史研究論叢』第4輯,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2; 同「讀宋史筌蒙古傳」, 『宋史研究論叢』第5集,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9(初出 : 1996); 同「読『宋史筌』立端宗 · 末帝紀」, 『岳飛研究』4輯, 中華書局, 1996.
5) 李成珪, 「「宋史筌」의 編纂背景과 그 特色——朝鮮學人의 中國史編纂에 關한 一研究——」, 『震檀學報』第49號, 1980; 金文植, 「『宋史筌』에 나타난 李德懋의 歷史認識」, 『韓國學論集』第33輯, 漢陽大學校韓國學研究所, 1999.
6) 이근명, 「『宋史筌』에 나타난 王安石과 王安石의 改革」, 『中央史論』36輯, 2012; 최해별, 「『御定宋史筌』卷8 「本紀 · 后妃」體例改編의 目的 : 『季漢書』繼承을 통한 正統性의 強調」, 『歷史教育』124, 2012; 홍승태, 「『宋史筌』「五行志」의 "災異" 記錄과 그 意味」, 『韓國史學史學報』28, 2013; 同「『宋史筌』「儒林傳」의 宋儒系統論」, 『韓國史學史學報』30, 2014.

www.kci.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朱熹의 『資治通鑑綱目』(이하 『綱目』이라고 함)이 편찬, 보급되면서 正統論을 기준으로 역대 왕조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明代에는 商輅에 의한 『續資治通鑑綱目』(全27卷, 成化12年(1476)成書, 『通鑑綱目續編』 이라고도 불림. 이하 『續綱目』이라고 약칭함)이 편찬되었다.[7] 明代에는 또한 개인에 의한 『宋史』 改修作業도 본격화되었다. 明代의 『宋史』 改修書 중에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으로는 王洙의 『宋史質』(全100卷, 嘉靖 25年(1546)成書, 1550年刊), 柯維騏의 『宋史新編』(全200卷, 嘉靖 34年(1555)成書, 1557年刊), 王維儉의 『宋史記』(全250卷, 天啓年間成書)가 있는데, 모두 宋을 중심으로 삼고 遼, 金 등을 列傳으로 편입시킨 특징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宋史新編』은 단순히 『宋史』를 要約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충한 부분도 많다고 평가받는다.[8]

2) 朝鮮後期 '朝鮮型中華主義'의 형성

조선은 성리학을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자 내부에서는 중화적인 질서의식이 보편화되어 갔다.[9] 그러나 明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체제가 명의 멸망(1644)으로 붕괴되자, 朝鮮 내부에서는 對明義理를 강조하여 南明政權과 호응해서 中華를 回復하려고 하는 '北伐論'이 대두되었다. 이는 무력에 의한 '中華回復論'으로 평가받는다.[10]

그러나 清朝가 中國支配를 안정화시키자 朝鮮의 北伐은 実現不可能하게 되었다. 그 결과, 朝鮮 내부에서는 새로운 '中華'로서 清이 적합한지, 아니면 朝鮮이 적합한지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조선은 자신들이 '中華의 繼承者'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中華回復論'은 '中華繼承意識'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선은 자신들이 中華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宋, 明의 역사서를 편찬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었다.[11]

이상으로 朝鮮의 中華主義와 正統論을 宋 이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그림〉과 같이 된다. 朝鮮에서는 華夷를 구분하는 세 요소인 地域, 種族, 文化 중에서 특히 文化의 요소를 중시하였다. 이 요소는 禮樂의 실행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朝鮮이 문화의 요소를 중요시한다면 이와 동시에 조선 이외의 세력도 中華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 바꿔 말하자면 清朝에도 禮樂이 성행한다면 '中華'로 인정해야 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朝鮮은 자신이 '中華의 유일하고 정당한 계승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明과 宋의 歷史書를 편찬하게 되었다.[12]

---

7) 王秀麗, 「《續資治通鑑綱目》纂修二題」, 『史學史研究』, 2004年第2期; 吳漫, 『明代宋史學研究』, 人民出版社, 2012, 48～53쪽.

8) 『宋史新編』의 史料的 가치에 대해서는 朱仲玉, 「明代福建史學家柯維騏和《宋史新編》」, 『福建論壇』, 1984年第1期 ; 陳學霖, 「柯維騏『宋史新編』述評」, 『宋史研究集』第20輯, 國立編譯館, 1990 ; 吳漫, 「論明代宋史著述的史料學價値」, 『第十三届明史國際學術研討会論文集』, 中國明史學会, 2009를 참고.

9) 金鎬德, 「朝鮮後期の儒教における華夷論の展開」, 『立命館文學』第549號, 立命館大學人文學会, 1997, 165～1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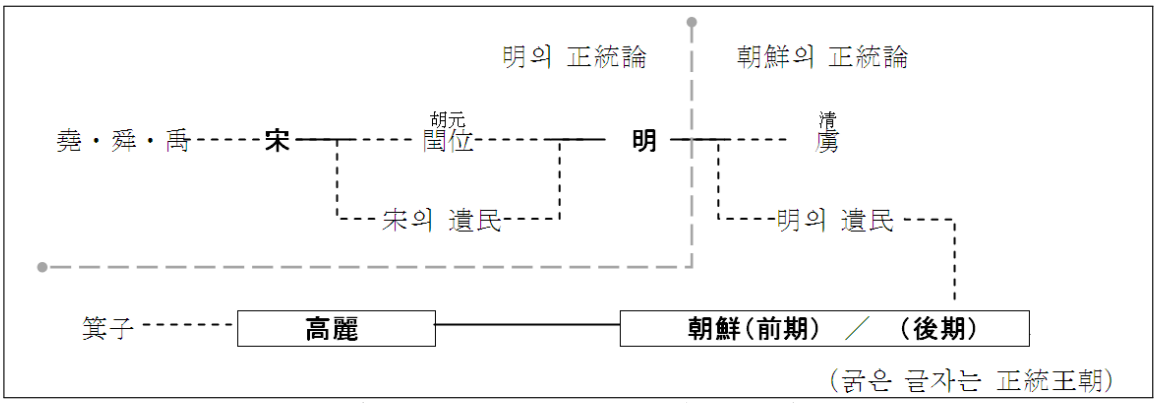
10) 허태용, 「17世紀 中·後半 中華回復意識의 展開와 歷史認識의 變化」, 『韓國史研究』134, 2006, 79～85쪽.

11) 허태용, 「東아시아 中華秩序의 變動과 朝鮮王朝의 政治·思想的 對応」, 『歷史學報』第221輯, 歷史學会, 2014, 50～54쪽.

12) 허태용, 「英·正祖代 中華繼承意識의 強化와 宋·明 歷史書의 編纂」, 『朝鮮時代史學報』42, 2007, 248～255쪽.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 明 및 朝鮮의 正統論 概念圖〉

2 . 朝鮮王朝에서 편찬한 宋代史書와『宋史筌』

1) 朝鮮에서 編纂한 宋代史書

조선후기에 편찬된 宋代 역사서에는 正祖 御纂의 『宋史筌』(후술)과 『宋史撮要』(全3卷), 『新訂資治通鑑綱目續編』(全27卷, 英祖49年(1773)刊, 이하 『新訂綱目續編』으로 약칭함)이 있는데, 이처럼 조선후기의 宋代 관련 역사서 편찬에는 正祖가 깊게 관여하였다. 그 밖에도 李恒老와 그 제자인 柳重教, 金平默 등에 의해 편찬된『宋元華東史合編綱目』(全33卷, 高宗7年(1870)成書, 隆熙元年(1907)刊, 이하『華東綱目』으로 약칭함)이 있다. 이『華東綱目』은 宋元史와 高麗史를 合編한 강목체 서책으로, 明 商輅의 『續綱目』이 胡元을 正統으로 간주한 서술을 비판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편찬하였다.[13]

조선에서 편찬한 中國史書 중에서『宋史筌』은 유일한 紀傳體 역사서이고, 또 총 150卷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14]

2)『宋史筌』의 編纂過程

『宋史筌』은 英祖 48年(壬辰, 1772)에 완성된 初稿(全80卷), 正祖 4年(1780)에 완성된 庚子本(全100卷)을 거쳐, 최종적으로 1791년에 辛亥本(全150卷)이 완성된다. 辛亥本『宋史筌』의 구성은 義例1, 目錄1, 本紀4, 志47, 世家2, 列傳91, 全150卷, 61冊이다.[15] 이 중에서「遺民傳」및 高麗·遼·金·蒙古傳은 李德懋에 의해 새롭게 편수되었다.[16]

한편 『宋史筌』 編纂에는 다양한 서적이 이용되었다. 「義例補」에 따르면 『宋史筌』「本紀」의 내용 일부는 商輅의 『續綱目』, 薛應旂의 『續通鑑』 (『宋元通鑑』이라고도 부름)에서 보충하였다[17]고 하여, 두 책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3) 서울大學校圖書館 編,『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史部1,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60~61쪽; 김남일,「朱子의『資治通鑑綱目』의「凡例」와 華西學派의『宋元華東史合編綱目』의「書法」比較」,『韓國史學史學報』22, 2010, 11~14쪽.

14)『宋史筌』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가진 책은 堯·舜에서 南明政權까지의 역사를 다룬 林象鼎의『林氏歷代史統』(총 75卷, 35冊)이다(閔斗基 外, 앞의 보고서, 21쪽).

15) 李成珪, 앞의 논문, 87~91쪽.

16) 李德懋의 文集『靑莊館全書』卷21~23에는『宋史筌』과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3 .『宋史筌』「義例」와「外國傳」配列에서 보이는 特徵

1)『宋史筌』「義例」에 나타나는 編纂方針

우선「義例」속에서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 ［史料１］『宋史筌』 卷首,「義例」,「遼 `金 `西夏 `俱是宋朝外, 不可與宋竝立各史以亂其統. 而脫脫之修史也, 西夏則建國僭號傳世十餘, 與遼金無異, 而特以其部落之異, 故編入於宋史之外國傳. ①遼金則東北之雜種, 高麗之屬國, 與西夏無別, 而乃以其族類近, 故並列於全史. 至皇明, 因循未改, 此是史家之大失也. 且蒙古, 卽元之舊號也. 鐵木眞, 始建號於宋寧宗之世, 四世相傳, 至忽必烈, 始幷呑中國, 天下之大統一而已. ②忽必烈十六年以後, 則不得已許其閏位矣. 大宋未亡之前, 豈加容各立史也. 其所以處之也, 宜無間於遼金. 故今依唐順之『左編』列元魏於匈奴傳例, 特立遼金蒙古三傳, 置之西夏之列, 總名外國傳.」

［史料１］은 조선후기에『宋史筌』을 편찬한 사람들이 遼, 金, 蒙古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밑줄 ①에서는 遼, 金을 '東北의 雜種', '高麗의 屬國'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1세기 이래, 高麗는 遼, 金으로부터 冊封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어디서 유래하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高麗時代의 天下觀과 對外認識, 高麗·朝鮮과 女眞族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高麗는 太祖 이래 遼河 以東 지역을 '海東天下'라는 독자적인 세계로 설정하고,[18] 高麗의 임금이 '海東天子'로서 군림하였다고 인식하였다.[19] 그리고 高麗는 遼, 金의 冊封體制에 대치하는 형태로 高麗王이 八關会에서 宋都綱, 東西蕃子, 耽羅 등으로부터 '朝賀'를 받는다는 독자적인 八關会적 국제질서를 구축하였다.[20] 이 '海東天下' 속에서 女真은 高麗의 蕃으로 규정되어 高麗側 史料에서는 그들을 지칭할 때 東蕃, 西蕃, 北蕃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21]

또한 조선전기 朝鮮과 女真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조선이 우위에 있었다. 예를 들어, 世祖 시기(1455~1468)에는 建州衛를 정벌하고 그 수령인 李滿住 (누르하치의 高祖)의 목을 베기도 하였다.[22] 따라서 '高麗의 屬國'이라는 표현은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였음은 확실하다. 그러나『宋史筌』편찬자는 이러한 관계를 遼와 建國 後의 金에게도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는 '朝鮮型中華主義'에 의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밑줄 ②는 正統論과 관련된 부분이다. 朝鮮은 몽골이 宋을 완전히 멸망시킨 뒤에도 '正統'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閏位'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인식은 明代의 正統論(특히『宋史質』의 정통론)과 궤를 같이하는데, 朝鮮後期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元朝에 대한 비판은 清朝의 非正統性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된다(후술).

---

17)『宋史筌』卷首, 義例補,「帝紀, 志傳之綱領也. 記大事者, 欲其統會. 立書法者, 欲其謹嚴. 而『宋史』本紀, 尤失體裁. 故芟其冗衍, 務歸精約, 汰其疊複, 庸期齊整. 間以『續綱目』·『續通鑑』補其闕漏.」
18) 秋明燁,「高麗時期'海東'認識과 海東天下」,『韓國史研究』129, 2005, 47~48쪽.
19) 盧明鎬,「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韓國史研究』105, 1999, 31~32쪽.
20) 奥村周司,「高麗における八關会的秩序と國際環境」,『朝鮮史研究会論文集』16, 朝鮮史研究会, 1979, 80~84쪽.
21) 秋明燁,「高麗前期'蕃'認識과 '東·西蕃'의 形成」,『歷史와 現実』43, 2002, 20~31쪽.
22) 이규철,「世祖代 建州衛 征伐과 明의 出兵 要請」,『歷史와 現実』89, 2013, 281~289쪽.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宋史筌』 「外國傳」은 宋→明→朝鮮으로 이어지는 조선왕조의 정통론과 北方民族에 대한 조선의 우위라는 인식 하에 편찬되었던 것이다.

2)『宋史筌』「外國傳」의 配列과 그 特徵

『宋史筌』「外國傳」 배열의 특징으로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 ［史料２］『宋史筌』 卷140, 「高麗傳」, 「宋之舊史有女眞傳, 而脫脫削之. 自今視之遼 · 金 · 夏 · 蒙古, 雖爲宋終始之患, 均是宋之外夷也. 依西夏例 `立三虜傳. 高麗則終始臣服, 宋之待遇也, 亦異於諸夷矣. 首之於編以寓褒貶之旨.」

이에 따르면 遼, 金, 夏, 蒙古는 宋의 外夷에 불과하기 때문에 西夏의 例에 따라 三虜傳을 세웠다고 하였다. 또한 高麗는 始終 臣服하였고 宋의 待遇도 諸夷와는 달랐기 때문에 列傳의 수위에 두어서 褒貶의 뜻을 은연중에 나타내었다(‘寓’)고 하였다.

『宋史筌』 「外國傳」 배열의 특징은 『宋史』 및 『宋史新篇』과 비교하였을 때 명확해지는데(〈표１〉을 참고), 양자 사이에는 그 배열이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宋史新編』 「外國傳」의 배열은 遼와 金이 열전으로 편입된 점을 제외한다면, 거의 『宋史』를 답습하고 있다. 한편, 『宋史筌』은 高麗의 건국 (918年)이 遼의 건국(907年)보다 늦음에도 불구하고, 高麗를 열전의 맨 앞에 두었다. 바꿔 말하자면, 10～13세기 동아시아에 대한 朝鮮의 세계관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宋史』		『宋史筌』		『宋史新編』	
卷數	項目	卷數	項目	卷數	項目
卷485, 列傳第244	夏國上	卷140, 列傳第83	高麗	卷192, 列傳第134	遼國(上)
卷486, 列傳第245	夏國下	卷141, 列傳第84	遼	卷193, 列傳第135	遼國(下)
卷487, 列傳第246	高麗	卷142, 列傳第85	夏	卷194, 列傳第136	金國(一)
卷488, 列傳第247	交阯 大理	卷143, 列傳第86	金	卷195, 列傳第137	金國(二)
卷489, 列傳第248	占城 真臘 蒲甘 邈黎 三佛齊 闍婆(南毗附) 勃泥 注輦 丹眉流	卷144, 列傳第87	蒙古	卷196, 列傳第138	金國(三)
卷490, 列傳第249	天竺 于闐 高昌 回鶻 大食 層檀 龜茲 沙州 拂菻	卷145, 列傳第88	交阯 大理 占城 真臘 蒲甘 邈黎 三佛齊 闍婆 南毗 勃泥 注輦 丹眉流 天竺 于闐 高昌 回鶻 大食 層檀 龜茲 沙州 拂菻 流求 定安 渤海 日本 党項 吐蕃(唃厮囉 董氊 阿里骨 瞎征 趙思忠)	卷197, 列傳第139	夏國
卷491, 列傳第250	流求國 定安國 渤海國 日本國 党項			卷198, 列傳第140	高麗 交阯 大理
卷492, 列傳第251	吐蕃(唃厮囉 董氊 阿里骨 瞎征 趙思忠)			卷199, 列傳第141	占城 真臘 蒲甘 邈黎 三佛齊 闍婆(南毗附) 勃泥 注輦 丹眉流 天竺 于闐 高昌 回鶻 大食 層檀 龜茲 沙州 拂菻 流求 定安 渤海 日本 党項 吐蕃(唃厮囉 董氊 阿里骨 瞎征 趙思忠)

〈표１:『宋史』·『宋史筌』·『宋史新編』外國傳의 目次 比較表〉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4 .『宋史筌』「遼傳」의 特徵 ——『宋史新編』「遼傳」과의 比較를 통해서

1）分量面의 特徵

『宋史筌』「遼傳」의 분량면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宋史新編』「遼傳」과 비교를 해 보았다(〈表2〉를 참고). 이를 통해『宋史筌』의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宋史筌』「遼傳」은 耶律璟(遼 穆宗)에서부터 시작한다. 한편, 『宋史新編』은 耶律阿保機에서 기술이 시작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으로는 편찬자가 역대 正史와의 관련성을 의식하였느냐의 여부이다. 예를 들면 耶律阿保機로부터 耶律璟 이전까지의 시대는 唐末五代에 해당되는데, 新·舊『五代史』에는 이미 契丹에 관한 기록이 附傳되어 있다.[23] 『宋史筌』「遼傳」은 두 『五代史』와 기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宋 건국 이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둘째, 『宋史新編』「遼國下」에는 『遼史』「列傳」을 요약한 부분이 있지만, 『宋史筌』에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宋史新編』「遼國下」가 '列傳 속의 列傳'이라는 體裁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外國傳」의 통일성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종합하자면, 『宋史新編』에는 『遼史』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宋史筌』에는 이러한 점이 보이지 않고, 더욱 「列傳」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宋史筌』			『宋史新編』			주요 出典
卷數	區分	字數	卷數	區分	字數	
遼傳	耶律璟(附自遼之先至阮)	445	卷192, 遼國上	遼之先世	432	『遼史』本紀
				阿保機	874	
				德光	1487	
				阮	446	
				環	617	
	賢	462		賢	923	
	隆緒	1301		隆緒	2088	
	宗眞	772		宗真	1086	
	洪基	1249		洪基	1706	
	延禧	2091		延禧	3013	
	耶律大石	308		耶律大石	352	
	·	·	卷193, 遼國下	諸臣傳	8247	『遼史』列傳
	地理, 其他	755		遼之境土, 其他	968	『遼史』志
	論讚	139		論讚	159	
	計	7522		計	22398	

〈表2 :『宋史筌』및『宋史新編』「遼傳」의 分量 比較表〉

2）體裁面의 特徵

다음으로 체재면에서『宋史筌』「遼傳」을 다섯 군데에서 기술이 다른 점이 확인된다.

23)『舊五代史新輯會證』卷137, 契丹;『新五代史』卷72,「四夷附錄」第1, 契丹.

www.kci.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宋史筌』의 記述構成 : ①이름, ②字 또는 小字, ③어머니에 대하여, ④즉위 이전의 경력과 성격, ⑤즉위기사, (⑥宋의 年號), ⑦本文, ⑧死亡記事, ⑨評價, ⑩享年, ⑪在位年, ⑫年號紹介, ⑬諡號, ⑭廟號, ⑮墓號, ⑯繼位者.[24]
『宋史新編』의 記述構成 : ①이름, ②字 또는 小字, ③血緣關係, ④즉위 이전의 경력과 성격, ⑤즉위기사, ⑥改元記事, ⑦本文, ⑧死亡記事, ⑨享年, ⑩改元數, ⑪在位年, ⑫評價, ⑬繼位者, ⑭諡號, ⑮廟號.

(a) 血緣關係 (③番) : 『宋史筌』은 어머니 뿐, 『宋史新編』은 주로 아버지
(b) 年號使用의 有無(⑥番) : 『宋史筌』은 宋의 年號, 『宋史新編』은 遼의 年號
(c) 死亡用語 (⑧番) : 『宋史筌』은 '殂', 『宋史新編』은 '卒'
(d) 在位年의 用語 (⑪番) : 『宋史筌』은 '僭位', 『宋史新編』은 '改元者某, 凡某年'
(e) 墓號의 有無 : 『宋史筌』에는 있음, 『宋史新編』에는 없음

이 중에서 (b), (c), (d)는 正統論과 관련된 것으로, 『宋史筌』은 遼를 '僭位'로 간주하여 『宋史新編』보다 더욱 철저하게 正統論에 입각하여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 墓號의 경우는 『宋史』「夏國傳」의 李元昊 稱帝 이후의 체례[25]를 따랐다고 생각한다.

2) 내용면의 특징

① 宋에 대한 尊崇과 高麗에 대한 關心

우선, 『宋史筌』「遼傳」의 기사는 교묘하게 宋을 尊崇하는 형태로 편찬되어 있다.

『宋史筌』「遼傳」, 「(淳化) 二年, ①定難軍節度使李繼捧來附, 封西平王. ②李繼遷叛隆緖歸降.」

『遼史』 卷13, 「聖宗本紀」, 統和9年條, 「(冬十月) ①丁丑, 定難軍節度使李繼捧來附, 授推忠効順啟聖定難功臣 · 開府儀同三司 · 檢校太師兼侍中, 封西平王. 十一月己亥, 以青牛白馬祭天地. ②十二月, 夏國王李繼遷潛附于宋, ③遣招討使韓德威持詔諭之.」

淳化 年間은 黨項族(나중에 西夏가 됨)의 독립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宋과 遼 사이에서 離反과 帰順을 반복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이에 관해서 『宋史筌』에서는 ① 李繼捧이 遼에 來附해서 西平王으로 봉해진 기사와, ② 李繼遷이 宋에 帰順한 기사를 실었다.[26] 『遼史』의 統和 9年 10月에서 12月까지의 기사 중에서 11月의 기사를 삭제하면 ①과 ②는 離反과 帰順이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된다. 또한 『宋史筌』에서는 『遼史』의 밑줄 ③을 삭제하여

24) 예컨대, 『宋史筌』의 耶律賢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①賢, ②字賢寧, ③小字明扆. ④母蕭氏. ⑤甫四歲, 遇察割之難, 璟養爲子. 及璟被弑, 帥甲騎, 赴懷州卽位. 納尚書令蕭守興女燕燕爲后. 賢嬰風疾, 燕燕決國事. ⑦ (中略) ⑧(太平興國)七年, 賢寇滿城敗還, 殂于焦山. ⑨賢任人不疑. 信賞必罰. 然竭力助漢. 破軍殺將. ⑩年三十五. ⑪僭位十四年, ⑫改元曰保寧曰乾亨. ⑬諡康靖皇帝, ⑭廟號景宗, ⑮墓號乾陵. ⑯長子隆緖立」(번호는 필자 추가. 이하 같음)
25) 『宋史』 卷485, 「夏國傳」上, 「元昊以慶曆八年正月殂, ⑩年四十六. ⑪在位十七年, ⑫改元開運一年, 廣運二年, 大慶二年, 天授禮法延祚十一年. ⑬諡曰武烈皇帝, ⑭廟號景宗, ⑮墓號泰陵. (中略) ⑯子諒祚立.」
26) 한편 『宋史新編』에서는 밑줄 ①의 기사만 실었다. 『宋史新編』 卷192, 「遼國」上, 「(統和)九年, 十月, 李繼捧叛宋, 附契丹. 封爲西平王.」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黨項族이 李繼遷에 의해 다시금 宋으로 帰順한 듯이 서술하였다. 그밖에도 송이 요와 싸워서 크게 패한 高梁河와 岐溝關의 싸움도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또한『宋史筌』은 그 밖에도 高麗 關連記事를 빠짐없이 채록하였다.

> 『宋史筌』「遼傳」,「(至道元年) 高麗遣童子十人, 來學契丹語. (中略) (大中祥符五年) 設學歸州, 教其民, 本新羅所遷者未習文字故也.」

『宋史新編』의 경우, 耶律隆緒의 기술 분량이 전부 2088字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宋史筌』「遼傳」은 耶律隆緒의 기술 분량이 전부 1301字이지만, 두 記事(31字)를 남겨두었다(글자 수에 대해서는 〈表2〉를 참고). 이처럼 「遼傳」의 内容에는 正統인 宋과 編纂 담당자인 朝鮮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② 禮教에 관한 기사의 수록

또한 「遼傳」에는 儒學에 관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科擧 設置 기사,[27] 五經의 大義를 講論한 등의 기사,[28] 書籍編纂에 관한 기사[29]가 실려 있다. 이들 기사는 『宋史新編』에는 전부 실려 있지 않다. 禮教 관련 기사의 수록에 대해서는 『續綱目』의 설명이 참고가 된다.

> 『續綱目』卷6, 熙寧 3年 5月條
> (庚戌, (熙寧) 三年, 五月)遼立賢良科.
> 令進是科者, 先以所業十萬言進.
> [發明] 遼立賢良科, 曷為書, 嘉其求賢於國, 故進之也. 遼居外夷, 志切求賢, 宋乃中華, 反棄正士, 是何中外之不一乎. 語曰,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 美在夷狄, 則罪在中國矣.

밑줄과 같이 遼가 나라에서 賢者를 구하는 일을 가상하게(‘嘉’)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美이 夷狄에게 있다면 罪는 中國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宋史筌』에서도 禮教 關連記事를 수록한 이유로 ‘鑑戒’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즉, 夷狄조차 禮教를 닦는다면 ‘中華의 繼承者’는 더욱 禮教를 振興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中國 주변국에서도 禮教를 닦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史料1]에서 나타난 ‘東北의 雜種’, ‘高麗의 屬國’이라는 인식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사를 단순히 遼의 행동을 칭찬하기 위해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外國傳」의 전체 配列과 관련시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宋史筌』은 특별히 「外國傳」의 맨 앞에 「高麗傳」을 두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순서는 高麗가 遼, 金, 西夏, 元과는 달리 禮教가 더욱 발전하였음을 暗示하게 된다. 第 1章 2)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

27)『宋史筌』「遼傳」,「(端拱元年) 初置貢擧. …… (淳和五年) 貢明經 · 茂材異等. …… (熙寧) 三年, 設賢良科. 令應是科者, 先以所業十萬言進.」

28)『宋史筌』「遼傳」,「(至和二年) 設學養士, 頒五經傳疏, 置博士助教. …… 元祐元年, 召權翰林學士趙孝嚴 · 知制誥王師儒等講五經大義. 四年, 諭學者當明道窮經.」

29)『宋史筌』「遼傳」,「(慶曆) 四年, 初修國史. 命耶律谷欲 · 耶律庶成等充史官. …… 六年, 諭林牙蕭韓家奴撰禮書.」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文化의 요소를 기준으로 華夷를 구분하였던 朝鮮後期의 思想界와도 일맥상통한다.[30]

마치며 ——『宋史筌』에서 나타난 조선의 '中華' 의식과 교육관

이상으로 『宋史筌』 「遼傳」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분석을 통해, 『宋史筌』이 『宋史新編』보다 더욱 철저하게 正統論에 입각해서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宋史新編』「遼國傳」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宋史』 改修書의 「列傳」임에도 불구하고 遼의 年號를 사용한 점, 둘째, 五代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황하게 기술하여(총 3239字) 新·舊『五代史』의 기술과 중복되게 한 점, 셋째, 『遼史』 「列傳」을 요약한 부분이 있어서 「外國傳」 體裁의 통일성이 결여된 점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들어가며'에서 제시하였듯이 『宋史筌』의 ① 『宋史』 改修書로서의 의의와 ②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 우선 ①과 관련해서 清朝에서 宋, 遼, 金, 元의 歷史書 편찬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清朝는 宋, 遼, 金, 元에 대한 認識이 明과 朝鮮과는 달랐다. 後金의 崇德元年(1636) 5月에서 同 4年 6月까지 遼·金·元 三史의 満洲語 翻譯作業이 이루어졌다. 그 서문을 보면, '大遼國, 金國은 비록 天下를 統一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大遼國은 天下를 折半 얻었다. 金國은 天下를 太半이나 얻었다. 大元國은 天下를 統一하였다. 그들의 政法, 常制를 볼 수 있겠다'[31]고 하여, 자신들이 遼·金·元을 계승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遼→金→元→清이라는 '北方의 正統王朝'의 系譜化를 의미하는데, 『宋史筌』의 編纂意圖와 비교해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겠다.[32]

또한 清朝는 『四庫全書』의 편찬과 동시에 다량의 서적을 수집하고 검열을 하였다. 물론 『宋史』 改修書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四庫全書存目叢書』에 수록된 『宋史質』[33]에는 大化書局에 수록된 판본[34]과 다르게 夷狄, 金狄, 胡元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35] 이는 清朝가 서적검열을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清代에는 考證學이 발전하면서 『宋史』의 校勘, 考證作業이 진행되면서 考證學者에 의한 『宋史』의 改修도 시도되었다. 그렇지만 顧炎武, 朱彝尊, 陳黃中, 黃宗羲의 『宋史』 改修는 모두 완성을 보지 못했다. 즉, 考證學의 발달이 『宋史』 改修書의 완성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36] 이러한 의미에서 『宋史筌』의 완성은 史學史的으로 意義를 가진다.

다음으로 ②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華東綱目』이

---

30) 이는 中華文明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한 지역의 文明度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李德懋의 사상과도 상통한다. 그는 中華文明을 배워서 크게 夷狄의 기풍을 고친 예로서 安南交趾와 琉球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朝鮮은 文明度라는 측면에서 安南交趾와 琉球를 포함한 四夷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였다(山内弘一, 「朝鮮國人李德懋と慕華意識」, 『朝鮮文化研究』7, 2000, 27~28쪽).

31) 満文『大遼國史(dailiyoo gurun i suduri)』(東洋文庫所藏本, 請求記號 : Ma2-6-3) 卷1, 1葉 뒤~2葉 뒤.

32) 자세한 내용은 承志, 『ダイチングルンとその時代』, 名古屋大學出版会, 2009의 第 3章「歷史にまなぶ帝國の「かたち」——マンジュ語に譯された正史——」(初出:2005)를 참고.

33) [明] 王洙撰, 『史質』,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会編, 『四庫全書存目叢書』史部第20冊, 莊嚴文化事業有限公司, 1996.

34) [明] 王洙撰, 『宋史質』, 大化書局, 1977.

35) 『存目叢書』에는 大化書局本의 55쪽下左, 85쪽下~101쪽下, 436쪽上~437쪽上, 465쪽下, 470쪽上右~471쪽下의 부분이 결락되어있다.

36) 清代『宋史』改修에 대해서는 高遠, 『清代《宋史》學研究』, 武漢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56~91쪽을 참고.

www.krm.or.kr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교육·연구 등의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주목된다. 이 책의 편찬자인 李恒老와 그 제자들은 華西學派를 형성하고 '尊中華, 攘夷狄'을 내걸고 衛正斥邪派로서 활동하였다. 그 뒤 日本帝國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華西學派의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義兵運動을 전개하였다.[37]

이 『華東綱目』의 「書法」에 의하면 宋을 正統으로 삼고 송이 滅亡한 뒤의 元은 正統으로 인정하지 않고 '干統'으로 처리하고, 高麗는 특별히 '列國例'로 서술하였다.[38] 또 李恒老는 '夷狄으로 中國의 水準에 到達한다면, 역시 그들을 中國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하였고, 「書法」의 祭祀門, 學校條에서는 '學校는 高麗가 中國의 水準에 到達하였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하였다.[39]

한편, 이들 화서학파는 講會를 조직, 운영한 문인공동체이기도 하였다.[40] 결국 이들은 講會를 운영하면서 조선후기 유학교육이 成均館, 鄕校, 書院 등 공적인 교육기관을 넘어서 외부 공간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학교육이란 中華의 문화적인 요소를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華東綱目』의 正統 인식과 學校 관련기사의 중시는 『宋史筌』「遼傳」의 기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宋史筌』과 『華東綱目』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宋史筌』은 『華東綱目』 編纂의 전례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조선이 인식한 '中華'란 중화문명의 文化的 요소를 어느 정도 발전시켰는가에 대한 여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설령 淸代 中國이 朝鮮보다 文化的 요소가 뒤떨어진다면, 조선이 淸代 中國을 넘어서고 대체할 수 있었다. 『宋史筌』은 중국 正史를 改修하면서까지 조선을 宋, 明과 연결시키려고 한 조선의 '中華' 인식의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41]

---

37) 박인호, 「『宋元華東史合編綱目』에 나타난 華西學派의 歷史認識」, 『朝鮮時代史學報』27, 2003, 200~203쪽.
38) 김남일, 앞의 논문, 18~20쪽.
39) 吳瑛燮, 「19世紀 中葉 衛正斥邪派의 歷史叙述」, 『韓國學報』60, 1990, 145~146쪽.
40) 이에 대해서는 김대식, 「華西門人의 性格과 閭塾·書社의 지위」, 『教育史學研究』15, 2005; 同, 「華西 門人共同體 講會의 實際」, 『教育史學研究』21-1, 2011; 박종배, 「學規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書院 講會」, 『教育史學研究』19-2, 2009를 참고.
41) 일본의 경우,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가 纂修한 『大日本史』 卷243, 「列傳」170, 諸蕃12, 宋元(遼金)에 宋元에 관한 기록이 존재한다. 그런데 後期 미토학(水戸學)에서는 '尊王攘夷'를 내건 점에서 朝鮮의 衛正斥邪派와 닮았지만, 中國王朝를 '諸蕃'으로 표현하여 『華東綱目』과 크게 다른 점이 주목된다. 水戸學의 東洋學研究에 대해서는 秋山高志, 『水戸の文人』, ぺりかん社, 2009, 第12章「水戸藩士の東洋史研究」를 참고.

www.kci.or.kr